

지역 중소기업와 상생... 공공기관 동반성장 성적표 '양호'

중기부 동반성장 평가서 농어촌공사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전KDN·한국전력 등 '양호'...한전KPS 1단계 추락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입주기관들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상생 협력을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혁신도시 내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58개 공공기관의 한해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

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58개 평가 대상 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업계 중소기업에 농업용 저수지를 임대료 50%를 할인해 사업부지 제공했다. 그곳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8개를 조성하면서 발전 규모 1만6872kW를 달성, 해당 발전소의 예상 연간 수익 46억49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빛가람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중에서 한전KDN 역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한전KDN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중소기업과 에너지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협력 연구개발사업, 에너지ICT직무 운·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했고,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

또 정부의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연

계한 에너지ICT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인재 제도 도입, 협력사 장기재직 근속지원 포상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고, 한전KDN의 업(業)을 활용한 협력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 및 보안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양호'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단계 오른 '보통'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번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 반면, 한전KPS의 경우 전년도 '양호' 등급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통'을 받으면서 1단계 추락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되며, 중기부는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에 전문가가 동반성장의 전략을 세우거나 실천 과제를 찾는 등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핀테크 기업 정보 한눈에 KISA, '핀테크 기업 편람'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302개 핀테크 기업 정보와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핀테크 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은 1억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1%, 10억원 이상 34.7%로 1억~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P2P금융(56개), 간편송금·지급결제(55개), 금융플랫폼(41개), 보안·인증(35개), 블록체인·가상통화(27개), 로보어드바이저(20개), 크라우드펀딩(13개), 소액해외송금(8개), 자산관리(8개), 기타(39개) 등이었다.

중사자 수는 10인 이하 40.9%, 11인 이상 30인 이하 31.1%, 31인 이상 28%로 핀테크 기업 중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과 중사자 수 31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기업 설립 시기는 2013~2015년이 137개(45.4%)로 가장 많았고 2016~2018년이 85개(28.1%), 2013년 이전이 80개(26.5%)였다.

편람은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KISA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개 자료로 활용하도록 영문판으로도 발간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한류열풍 타고 'K-Food' 한류 이끈다



씨제이엔엠과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씨제이엔엠(CJ ENM)과 한국 농식품 글로벌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T와 씨제이엔엠은 한류 행사와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aT의 경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활용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홍보대사로 한 미디어 홍보, K-POP과 연계한 말레이시아-하노이 K-Food Fair 개최, 한류스타 이승기의 방콕 팬미팅과 연계한 딸기 홍보마케팅 등 아세안 시장에서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 효과가 컸다.

실제, 지난해 아세안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8.5%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aT는 씨제이엔엠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미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한류를 활용해 한국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원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로 힘입어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 및 홍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 농식품 홍보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소식품기업, 저렴하게 TV·라디오 홍보 하세요"

aT, 광고비 70%지원

중소식품기업이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방송광고를 앞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T의 지원사업을 받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등 미디어 광고비 70%를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벤처, 이노비즈, 글로벌 IP기업 등 혁신 인증을 보유한 기업

으로 한정되어 있던 방송광고 지원을 aT 지원사업 대상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방송광고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aT 지원기업 중 방송광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부터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kobaco 홈페이지(www.koba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이순신 장군 리더십에서 '청렴' 배우다



이정희(오른쪽)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광역계통운영센터를 방문해 전력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전 제공)

이정희 감사위원 특강 진행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한전 경기북부본부를 방문해 본부의 주요 현안과 청렴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임감사위원은 광역계통운영

센터 방문에 송변전 계통망 및 변전소 운전상황 등 전력공급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이순신 청렴 리더십 특강'을 통해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청렴성, 투명성,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을 본받아 삶의 지혜를 얻고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콘진,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을 위해 '신한류'를 개념화하고 이를 통한 확산 전략 로드맵을 정립한 '한류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신(新) 한류는 기존 일방적 현지 진출만을 고려했던 양적 성장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해, 한류가 주요 소비국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류 콘텐츠 향유 및 소비활동'을 뜻한다.

해당 연구는 한류 발전과정에 대한 성찰과 해외시장 속 한류 현황 분석을 통

해 한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신한류'로 개념화하고, 한국과 해외 현지에 미치는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콘진은 신한류 확산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향후 국정과제인 '쌍방향 문화 교류 실현을 통한 콘텐츠 수출 시장 확대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